

우리 근현대사의 '족보'같은 작품

조정래 지음 「아리랑」

순간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길을 가다가도, 꼭 짚어 말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꼭 찬 느낌, 기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모호한 감상에 젖을 때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지무지 재미있는 책을 읽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른 살이 가까운 지금까지도 그 감동이 서늘하게 남아 있는 책들이 있다. 학력고사를 끝내고 우연히 읽게 된 미하일 솔로호프의 「고요한 둔강」과 조정래의 「태백산맥」, 그리고 지금 읽고 있는 「아리랑」(해냄)이 바로 그런 책들이다. 나는 대하장편소설을 즐겨 읽는 편이다. 긴 소설을 읽고 있자면 갖가지 생각들이 마음을 들쭉시는데, 책을 덮을 때의 느낌이란 인생을 '한번 더 살아 본' 것 같은 여유와 평화이다.

「아리랑」도 그렇다. 이 소설의 배경은 한일 합방부터 해방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일제 36년사이다. 교과서 같은 책이겠거니 하는 선입견도 없지 않았지만 조정래의 글맛에 믿음음을 갖고 있는 나로서는 반가운 책이었다.

처음 이 책을 읽을 때 내심 이런 작정을 했다. 작가가 던지는 교훈은 어떠한 것도 받지 않으리라, 그 시기 얼마나 고통받고 살았건 선부른 동정은 보태지 않으리라, 더더욱 암암리에 강요될지도 모를 극일의 자세입에라.

사실, 안중근·김구·유관순이 전부인 줄 알았다. 아들, 딸, 부모를 잃고 만주로 불라디

보스토크로 밀려 가서 '의병'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는지, '돈 50전을 보고 물 밑 50리를 기는' 장덕풍과 같은 징글징글한 '우리 안의 적'이 있었는지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었다.

산 사람의 생가죽을 벗겨내는 6권의 「경신 대학살」에 이르러 나는 눈을 감았다. 순사가 경찰이 되고 훗날 고위장성이 되는 우리식의 용서에 대하여, 복수를 신성시하는 이슬람의 경전에 대하여 오래오래 생각했다.

「아리랑」은 우리 근현대사의 '족보'와 같은 작품이 아닌가 싶다. 유관순이나 안중근 의사들이 큰 뼈대를 이룬다면 송수익·방영근·보름이 같은 이들은 줄기와 뿌리를 힘겹게 뻗어나가 흔들리지 않도록 제몫을 다한 '우리 안의 영웅'일 것이다. '일제 36년' '광복 50주년'이라는, 기념식장의 하품 나는 타이틀로나 박혀 더 이상의 어떠한 자극도 주지 못하던 50년 저 너머의 역사가 「아리랑」을 통하여 대바늘로 쿡쿡 찌러듯 되살아나는 느낌이었다.

한숨과 기쁨이 섞인 깊은 숨을 토해내며 「아리랑」에 날날이 기록된 조상들의 행적을 뒤따르면서 나는 내가 나아갈 길,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차츰 읽을 수 있었다. 모든 위대한 소설들이 그러하듯.

박명화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65 가락 한라APT 1동 414호

그림과 글에 배어나는 인간의 본성

김병종 지음 「먹으로 그린 새가 하늘로 가네」

“퍼내도 퍼내도 끊임이 없는 이 정신의 분비물들은 서로 먼저 해집고 나오려 아우성이어서 나를 곤혹스럽게 하는 것이다.”

책머리에 이런 고백을 스스로없이 할 수 있는, 독자의 편에 서면 약간의 건방져 보이기도 하는 그의 글은 바로 그 점, 당당하면서도 어느때는 너무 세밀한 부분까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 이 생각은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군, 하는 동질감 같은 것까지 포함한 다양한 느낌을 준다.

그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서 그림을 글로 보여주는 글들의 군무는 그림만큼이나 아름답다. 더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약하고 불행한 것에 대한 사랑은 마치 박경리씨의 「생명에 관한 연민없이 글 쓰려 하지 마라」는 주장에 잘 맞는다. '읽고' '쓰고' '그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며, 등수로 정하는 일일 수 없다는 그의 말은 어렵지 않게 수긍이 간다.

이주 어려웠던 시절을 기차 터널처럼 지나 오면서도 사물에 대한 사랑이 그리 찢들지 않은 것은 그가 예술이라는 헛것에 홀려 인생을 헤매도록 운명지어진 이유로 합당하리라.

성경이 더없이 훌륭한 책으로 남은 여러 이 유중 하나는 거짓없이 씌었다는 것을 믿게 한다는 점일 것이다. 좋은 것만 쓰고 싶은 속성을 떨쳐버리고 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은 매우 용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가 화가라고 해서 문학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습다. 대학시절 신문문에 두 곳에 당

선되고 대한민국 문학상이란 상을 탄 것으로도 이미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니까 대학강단과 창작의 병행, 그것을 잘 지켜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더구나 이런 재미있는 글들이 그의 고백처럼 새싹처럼 솟아오른다는 것은 신나는 일이 아니라, 잔잔한 재미로 가득찬 내용이 현대처럼 짧게 짧게 빨리빨리를 외치는 이들에겐 딱 어울린다. 자연에 대한 끝없는 예찬이 그의 그림과 글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처음마음을 잃지 않고 간직한 덕분일 것이다. 세상의 어려움이 인간본성을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보여줌으로 인해 독자들은 그의 아름다운 그림과 글을 만날 수 있다.

94 FIAC에 출판한 그의 그림 열 점이 코큰 서양사람들에게 여덟 점이나 초장에 팔린 것을 보면 요사이 깃발처럼 흔드는 그림의 세계화에 성공한 것일까. 제목에서처럼 「먹으로 그린 새가 하늘로 가네」 그의 새가 지금 당신에게 오고 있음을 볼 수 있다면 그림에서와 같이 성공일 텐데…….

한명철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679-5 제천축협

편집 · 사식 · 출판 대행

1110-24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39-1 동신빌딩 201호
전화 / 737-2308 737-2309 팩스 / 737-2309



이런 경우에 더욱 효율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 ① 활판을 옵셋으로 바꾸는 경우
- ② 흑백 사진이 많은 정기 간행물
- ③ 전집류 출판
- ④ 장편 무협소설
- ⑤ 기타 대량의 출판물
- ⑥ 시한이 촉박한 원고

신 국 판

4×6배판

가 격 사 양 (단행본 기준)

편집 (사식 포함)	인화지 출력시	6,000원
	필름 출력시	7,000원
사 식	인화지 출력시	3,000원
	필름 출력시	4,000원
편집 (사식 포함)	인화지 출력시	8,500원
	필름 출력시	9,500원
사 식	인화지 출력시	5,500원
	필름 출력시	6,500원

새 가족을 모십니다

성별, 기혼 유무, 연령, 신체 장애 등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 ① 타자 2급 이상, 또는 그에 해당하는 속도
- ② McIntosh 경력 3년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실력

“ 편집 · 사식 대행업체는 많습니다. 그리고 편집 실무자들의 불만 역시 많습니다. ”